



보험연구원

보 도 자 료

2009. 3. 19(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09. 3. 18(수)	담당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진 역 선임(368-4413)	연락처	368-4433 총 2매

제목: 기대여명 증대를 고려한 퇴직연금 급여 지급 방식의 다양화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 나동민)은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일시금 중심에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이 1970년 이후 OECD 30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에 이미 OECD 국가의 평균 수명을 넘어섰다. 2006년 기준 55세 퇴직자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24년, 여자는 3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여명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퇴직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payout) 방식은 일시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사망 시점 및 투자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 중에 보유한 자산이 부족해질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55세 남자 퇴직자가 퇴직연금 자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보험회사의 종신연금연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년 인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존 기간 중에 자산이 부족해질 리스크는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은 모든 퇴직연금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31.1%에 달하며, 주식에 100% 투자할 경우 19.6%,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100% 투자할 경우에도 13.0%에 달한다. 반면, 분산투자를 해서 채권과 주식에 각각 30% 및 70%로 자산을 배분할 경우에는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이 11.6%로 낮아진다. 한편 퇴직자가 적절한 분산투자를 할 경우, 퇴직 연령이 65세와 75세

로 높아지면 투자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이 각각 14.1% 및 18.8%로 높아진다.

따라서 보험연구원의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자에게 노출된 리스크 수준이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급여 지급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국, 미국, 호주,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출(programmed withdrawal)*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 방식은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인출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기대여명 증가 속도를 반영함으로써 생존 기간 중에 자산이 소진되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 퇴직 시점에서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적립금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출 규모, 횟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소득 흐름을 유지시키는 방식

둘째,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여 적정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75세 이상 고연령에서 퇴직자의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예: 10년, 15년 등) 연금 수령을 거치한 후 연금 급여가 지급되는 거치연금 구입을 유도한다.

넷째, 퇴직 시점에서 지급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자가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소득흐름 방식(프로그램 인출, 연금)을 직접 체험한 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 방식을 최종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 급여 지급 방식의 다양화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연금세제 등 관련 법규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